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1 | Vol. 267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환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화엄신중 2차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6년 10월 10일 화엄신중 천일기도를 회향한데 이어 10월 15일부터 2차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음력 9월 15일) 입재하여 2019년 7월 11일(음력 6월 9일) 회향하는 이번 2차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의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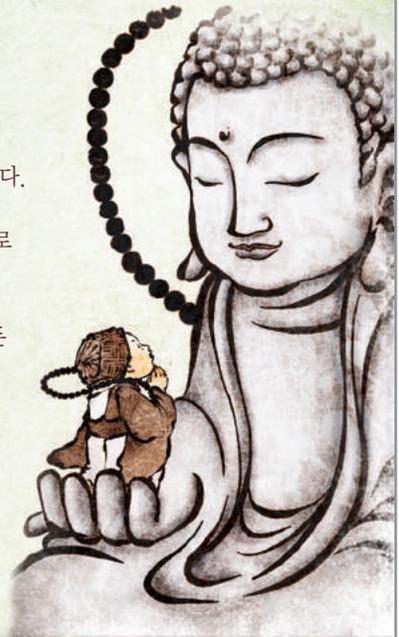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기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모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의 눈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님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 눈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지이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음 9월 15일)
- 회 향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음 6월 9일)

천일법회 : 합동기도재일은 매일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4층 대적광전에서 약한계 21독, 신묘 장구대다라니 21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일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2017
1

Vol. 267호



- 04 깨침의 향기
마음 관리하는 데는 불교가 최고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6 신년사
- 08 비슬산방
각자 본분사(本分事)를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그릇된 인식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다 · 본원스님
- 14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0)
담마닷시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8 편액과 주련
양진암(養眞庵) 법보전(法寶殿)과 선원 · 전일주
- 22 화보 - 병신년 동지법회
- 24 법왕사소식
- 26 법왕사게시판
- 29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1월 01일 발행 | 통권_267호 | 종무소_Γ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유,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관리 하는 데는 불교가 최고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 불교를 믿고 알려면 먼저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은 아버지인 부처님이고, 법은 아버지인 부처님의 말씀이며, 승은 아버지인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출가 수행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경(禮敬), 예불(禮佛)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문명이 아니고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재창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바로 그러한 문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예경과 예불은 껍데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불제자가 되려면 예경, 예불은 하되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부터 해야 합니다.

시아본사(是我本師)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소명의식과 사명감, 자존심을 갖고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정말로 훌륭한 고등종교입니다.

진리, 진실은 뭘까?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바로 불교의 수행법에서 찾아야 합니다. 참선과 참회와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 숨어있는 실제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불교의 수



행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미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 즉 고정관념, 자신의 상(相)을 스스로 부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假)를 버리고 진아(眞我)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학문은 진아를 인식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개념화된 세속적 방편일 뿐입니다. 이 학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적 개념일 뿐이지 결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문이 필요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남을 이롭게, 사회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법(法)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진리입니다. 불법은 영구불변한 진리입니다. 원론적인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등의 교리에 합리성, 논리성, 창의성을 더해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무유공포(無有恐怖)라,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견(正見),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바른 견해, 즉 정견을 가져야 하는 것입

니다. 합리적인 바른 견해를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직관력과 통찰력,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혜(般若智慧)입니다. 반야지혜는 모든 공포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자기도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느덧 자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佛性)입니다.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품성, 법성(法性: 불성을 끄집어내어 자신과 남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불교의 좋은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 즉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나와 남이 행복해질 수 있는 차안(此岸), 속세가 아닌 피안(彼岸), 극락(極樂)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입니다.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해결하면 결국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성불(成佛)입니다. 결국 불법은 마음을 관리하는 철학입니다.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새해가 되길

심경스님 / 중심문도회 회주



희망으로 맞이했던 병신년 한 해가 절망과 회한 속에서 저물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끝 간 곳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사태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부르짖으며 그르친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온 국민이 동참한 결의에 찬 함성이었습니다.

다. 법왕사에서는 지난 한 해 안팎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대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백고좌 법회를 원만하게 회향하였고, 가창에 제2요양원인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불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대 부지 5천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왕사 범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불심과 그 불심에 응답하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대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를 수 없을 것 같았던 목표를 성취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주지스님의 대원과 불자님들의 불심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합쳐지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롭게 밝아 온 2017년에는 지난해의 아픈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오로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못다한 불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어 실상스님 필생의 서원인 ‘세계최대 불교복지도량’ 건립이 하루속히 회향하도록 변함없는 동참을 바랍니다.

정유년 한 해에도 법왕사 범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뢰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주호영 / 국회의원·수성구을



법왕사 불자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만수무강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참’이란 진실이자 본질입니다. 인위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인 자연부처가 바로 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 존재한다면 참지도자, 참교육자, 참 진리, 참지혜처럼 ‘참’이란 접두어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이면 지도자이지 참지도자 따로 있고, 그냥 지도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짐 실은 소를 이끌고 큰물을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를 이끄는 사람이 똑바로 이끌어 가게 되면 무사히 큰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일체가 다 제대로 바로잡아 지느니라. 중생들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많은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바로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않게 된다” 고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나라는 많은 선각자와 애국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런 소중한 나라에 사는 우리 또한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참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정치인도 참 정치인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더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유년 한 해는 제대로된 지도자가 제대로 이끌어주는 나라가 되길 기원하면서 법왕사 불자 여러분도 참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각자 본분사(本分事)를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가 물러갔습니다. 우리 최근래 역사상 올해만큼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국가적 위기상황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2017년 정유년에는 불자님 가정과 직장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합장 삼배로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묵은 해의 좋지 않은 기억을 다 날려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과오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일을 경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제대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에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전비(前非)의 원인과 과정을 낱알이 따져보아서 그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찍이 사람마다 각자의 본분사(本分事)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분사란 무엇인가요? 마땅히 해야 할 직무, 각자의 지위와 신분,

역할과 책임에 따라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본분사가 될 것이며,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수도승은 용맹정진을 거듭해 성불하는 것이 본분사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큰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간 관계에 바탕을 둔 비선 조직을 통해서 엄중한 국가대사를 추진함으로써 결국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각료와 비서진은 또 어떠한했습니까? 마땅히 위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행정조직을 장악하여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만약 외부의 압력에 의해 그런 역할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간언(諫言)을 통해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또한 본분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위 관료들이 그런 책무를 망각하고 이미 본분사를 잊어버린 대통령의 사사로운 의중만 살피고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하는 요사스러운 사인(私人)의 비위를 맞추는 주구(走狗) 노릇을 함으로써 국가를 능멸하고 나라의 주인인 온 국민을 분노케 하

였으며 결국 자신의 신세까지 망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평소 눈에 불을 켜고 행정부의 실책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본분사이지만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정파나 계파의 이익에 매몰되어 청맹과니와 같은 시야로 국가대사를 재단하니 그 또한 본분사를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맡긴 신성하고 엄중한 권력을 위임받은 분들이 제 역할을 참되게 수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인인 우리마저 본분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정유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사가 많습니다. 저는 일찍이 세운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대원을 초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본분사에 매진하는 것만이 불자 여러분의 성원과 불보살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범우 여러분들 또한 올 한 해에도 오직 부처님 법에 의지해 수행 정진하는 것만이 본분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범우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릇된 인식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세월이 흐르면 몸서리쳐지는 아픔도 기억의 뇌리에서 삭아지며 소멸된다고 하지만 삭으면서 잊혀지는 건 생각의 의식층이 갖는 기억이 희미하게 지워질 뿐이지, 그때 있었던 일들이 뇌리에서 사라진다거나 경험했던 상흔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백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통치 지배자는 폭력으로서 지상을 정복하고 바다 끝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바다 이쪽에 만족하지 않고 바다 저쪽까지 차지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통치자는 전쟁을 일으켜 백성에게 재난과 손해를 끼친다. 또 막강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제멋대로 백성을 박해하면서 괴롭힌다. 이런 점에서 통치자는 도적과 다름이 없다.’ <자타카>

<자타카>는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온갖 몸을 나투며 만행보살로 살았던 설화이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부처님은 아득한 옛날부터 왕이나 왕자, 수행자, 상인 등의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 앵무새, 비둘기, 코끼리 등 동물로까지 바뀌 태어나면서 온갖 미담과 선행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자타카는 아라비안나이트와 신밧드의 모험, 이솝우화 그리고 우리 별주부전의 원전이 되기도 한 인도가 자랑하는 고대 문학의 보고(寶庫)로 동서양을 넘나든 이들 설화는 전래 동화형식으로, 보살 수행자로서 공덕을 쌓는 고뇌와 역경, 권선징악을 위해 범속한 인간들처럼 벌을 주고 벌을 받는 만 가지 행위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특히 어렵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교리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다른 경전들에 비해 옛날이야기 식으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인과응보(因果應報)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가르침을 일깨우는 이 이야기들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그 양도 대단히 많았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

태생적으로 야성에 길들여진 황량한 초원의 유목민으로서 오직 강한 힘만이 정의고 옳다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피비린내로 물들이며 속국을 만들어서 강성한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1162~1227)의 군대는 12~13세기에 걸쳐 유라시아를 피와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일찍이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야만스런 침략과 만행으로 악명을 떨치는데 지금도 동유럽에선 타타르(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리며 옛적 키 작은 몽고인이 저지른 금수(禽獸)보다 못한 행위에 치를 떤다고 한다.

몽고군에 맞선 항전은, 고려 삼별초군이 그랬듯이, 남김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으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흡사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황하 들녘처럼 초토화된 생지옥의 참상

만이 남았다고 <전쟁비사>는 전한다.

징기스칸에 이은 오고타이, 그리고 3대 쿠빌라이, 4대 타무르로 이어지면서 유목 부족이었던 몽고는 중앙 아시아 사마르칸트를 비롯하여 동유럽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인접한 중국,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무력 지배하면서 패악과 살상은 그저 몸에 배인 일상화가 되어버린다.

잔인무도한 정복군의 말발굽 아래 무차별 짓밟혀 원통하게 죽었고 한스런 피를 뿌리며 살이 베이고 찢겨 터지는 상처의 고통 중에 차마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이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인도 침략 때에는 나자푸르지역에서 한 시간에 무려 1,748,000명의 양민을 학살했다고 전하는 기록은, 인간의 탈을 쓰고서 금수보다 더한 잔인무도한 짓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인간이기를 거부하며 잔혹한 행위를 즐겨 자행한 일 중에, 지금도 섬뜩한 것이 ‘팽살(烹殺)이다. 잔혹하고 호전적인 전사집단을 만들기 위해 군율을 어기는 병사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고 쪄 죽이는 팽살이 병영문화의 관습이였는가 하면, 전투 때 겁먹고 달아나는 병사를 형벌하는 방식으로 녹인 쇳물을 코에, 귀에 들이부었을 정도로 극악성을 보였다.

1227년 8월 중국 감숙성 위수(渭水)에서

낙마하여 병에 시달리던 징기스칸이 죽자 몽고군은 보안상 그의 죽음을 극비에 붙인 채 떠나면 본토까지 시신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송 행렬 도중 만나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으니, 죽은 자 하나를 위해 무고한 산 자가 슬하에 죽어가야 했던 엽기적 인간 사냥을 서슴지 않은 일례를 보더라도 냉혹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무법의 정복자, 징기스칸을 가리켜 ‘3대 영웅’, ‘천년사에 빛나는 인물’, ‘뛰어난 리더십’이라 찬사하며 특별한 인물로 부각시켜 칭송하는 경술·경박한 짓은, 훗날 누군가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부추킨다는 점에서 또다른 형태의 죄악이다.

세월이 흐르면 몸서리쳐지는 아픔도 기억의 뇌리에서 삭아지며 소멸된다고 하지만 삭으면서 잊혀지는 건 생각의 의식층이 갖는 기억이 희미하게 지워질 뿐이지, 그때 있었던 일들이 뇌리에서 사라진다고나 경험했던 상흔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백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마음이란 몸이란 일단 한번 받은 생채기는 연기법적 인연을 기초로 복합적으로 얽힌 유전인자의 인과 상관관계 속에 동적인 힘이 축적·전달, 가족력과도 같이 내리 이어 짐은, 양자(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지워지는 부자연스러운 속박과 불안스런 굴레의 틀을 형성시킨다는 점이다.

그럼으로 현자는, 지나간 일(역사)을 잊으면 쇠락과 망국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였으며, 인간 삶의 족적인 역사는 흐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반복되는 것이라고 한 그 배경에는 이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징기스칸은 잔인무도한 영웅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고대 원정군 정복의 이면에는, 동서문화의 만남이 서로 다른 지역간 문명 전파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헬레니즘(서양)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BC 326~ BC 302년) 이후 그리스 고유 문화가 오리엔트(동방) 문화와 융합하여 어우러진 새로운 조류의 문화적 밑거름이 됐음을 지적하곤 하는데, 이는 적어도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대로라면 남의 물건을 예사로 훔치고 약탈한 도적이 훔친 물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 이롭게 했다거나, 강도가 약탈한 물건을 장물애비에게 헐값에 넘기며 이익을 안겼다고 해서 그 가혹함에 감사패가 내려져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또 다른 경우, 일단의 금세 밀수가 금의 수요가 부족한 나라에서 한편으론 금세공의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상습 마약사범이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지병이 호전되었다는 점을 가상히 여겨 면책이 되고 면죄부를 줌

으로써 각가지 범법행위가 도리어 선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전도된 논리가 성립됨으로써, 그리되면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는 악순환이 되고 만다.

살인마 징기스칸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양면성의 가치를 두고 판단할 일이다', '그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다'는 등의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지식인이나 의식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징기스칸을 영웅으로 선망시하여, 정벌(征伐)과 정복자를 뛰어난 인물로 묘사하며 동경하는가 하면, 그런 나머지, <타임스>의 빛나간 왜곡된 발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은 야만스런 폭력과 무고한 살상일지라도 내가 힘이 있어 합법화와 무법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후세에 길이 이름을 드날리고 공명을 누리는데 그 중시에 나와 내 자식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그릇된 공격성향, 지친 야만성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독일의 몽고학자 발터 하이시히의 <몽고의 역사와 문화>의 첫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들은 ‘몽고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는가.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침입한 기마군이나 또 1242년 리그니츠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떠올린다.”

징기스칸이 죽은 지 얼마간을 있다가 역사를 쓴 그 중세의 역사가들은 그를 잔인무도한 정복자로 묘사했다.

7백년 이상이나 되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타타르라고 한 털이 거칠고 키가 작은 말에 탄, 팔이 짧은 기병을 보고 부들부들 떨던 기억이 그대로 오늘 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다.





담마닷시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6년 9월호, vol.266)에서는 보살(수메다)이 앗타닷시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4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앗타닷시 부처님은 거대한 어둠을 파괴하고,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그때 고평따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시마'라는 고행자였는데, 천상의 홍두화꽃과 연꽃으로 앗타닷시 부처님을 공경한다. 그러자 앗타닷시 부처님은 '수시마' 고행자에게 '미래에 고평따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앗타닷시 부처님은 10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이 고행을 건너게 한 후, 아노마 숲속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ṅ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짜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5번째의 붓다인 담마닷시불(dhammadassi-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종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17, vs.1-25) 의역요약]

*(아래 주석 1번 참조)

1. 담마닷시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_그 만다껍(maṇḍa-kappa : 두 명의 부처님이 태어나는 때)에서 위대한 명성을 가진 담마닷시 부처님은 거대한 어둠을 파괴하고, 신들의 세계에서 다른 신들보다 더 아름답게 빛난다.

[vs. 2-4]_또한 그 비할 바 없는 빛(담마닷시 부처님이) 범의 바퀴를 굴릴 때, 10만 꼬띠(1조)의 중생들에게 첫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그리고 담마닷시 부처님이 산자야(sañjaya)라는 선인(isi)을 지도할 때, 90꼬띠(9억)의 중생들에게 두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또한 제석천(sakka)과 그 무리가 지도자(담마닷시 부처님)에게 다가갈 때, 80꼬띠(8억)의

중생들에게 세번째의 통찰이 있게 된다.

[vs. 5-8]_또한 그 신중의 신(담마닷시 부처님)에게는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가 파괴되고, 흠이 없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진 그러한 모임이다. 담마닷시 부처님이 사라나(saraṇa)에서 우기 안거에 들어갈 때, 10만 꼬띠(1조)로 구성된 첫번째 모임이 있게 된다. 다른 때에 [담마닷시부처님이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오실 때, 100꼬띠(10억)로 구성된 두번째 모임이 있게 된다. 또 다른 때에 [담마닷시부처님이 두타행의 공덕(dhute guṇa)을 설명할 때, 80꼬띠(8억)로 구성된 세번째 모임이 있게 된다.

*(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9]_그때 나(고따마 부처님)는 뿌린다다(purindada) 제석천(sakka)이었는데, 천상의 향과 꽃다발, 음악으로 크게 공경한다.

[vs. 10-11]_또한 그 담마닷시 대성자 부처님은 나(뿌린다다 제석천)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지금부터 무수한 겁(kappa)이 지난 후(1,800겁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

는 ‘마야(māyā)’ 라 하고, 아버지는 슷도
 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타마
 (gotama)가 될 것이다. 풀리따(kolita)와 우
 빠뫼싸(upatissa)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
 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
 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
 (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
 (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짜따(citta)와 하
 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따라(uttarā)와 난
 다마따(nandamātā) 가 그의 상수 재가 여
 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부처
 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데 없는 위대한 성자(담마닷시 부처
 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
 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
 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
 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
 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담마닷
 시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
 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
 치 [지킴]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
 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킴] 우
 리가 이 [담마닷시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
 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
 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2] 내가(뿌린다다 제석천=미래의 고타
 마 부처님)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
 더 기뻐지고, 10바라밀(pa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담마닷시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3-15] 담마닷시 스승(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사라나(saraṇa)이고, 사라
 나(saraṇ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
 는 수난다(sunandā)이다. 그는 8천년 동
 안 집에서 머무는데, ‘아라자(araja), 위라자
 (viraja), 수닷사나(sudassana)’ 라는 세계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4만3천명의 아
 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
 름은 위찌콜리(vicikoli)이고, 아들은 뽀냐왓
 다나(punna-vaddhana)이다.

[vs. 16-17] 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
 (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궁전을 떠나 출
 가한다. 인간 중에 최고인 담마닷시 부처님
 은 7일간 고행정진을 한다. 중생의 군주이
 고, 위대한 영웅이며, 최고의 인간인 담마닷
 시 부처님은 범천의 요청이 있자 범의 바퀴

를 굴린다.

[vs. 18-20] 담마닷시 스승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빠두마(paduma)와 뿔사데와(phussadeva)이고, 시자는 수넛따(sunetta)이다. 그리고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케마(khemā)와 샷짜나마(saccanām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빔비잘라(bimbijāl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수밧다(subhadda)와 까뎃사하(katissaha)이고, 으뜸가는 재가여 성신자는 살리아(sāliya)와 깔리야(kaliya)이다.

[vs. 21-22] 그 [담마닷시]부처님은 무등등과 동등하고, 신장은 80하타(44m)이며, 일만세계에 빛이 퍼진다. 그는 만개한 사라나무왕처럼, 하늘의 번개처럼, 한낮의 태양처럼 그렇게 빛난다.

[vs. 23-25] 비할 바 없는 빛을 가진 그 부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 10만년 동안 통찰력을 갖추어 세상에 머문다. 빛을 보이고, 흠없는 가르침을 편 후, 하늘의 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드신다. 위대한 영웅이신 담마닷시 부처님은 사라나무 숲속 공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그리고 거기에 훌륭한 탑이 세워지는데, 높이가 3요자나(33m)이다. <계속>

*주석1 :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벨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 [KN-Bvm-a-gantharambha-katha]

*주석2: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옷따라와 난다따따를 마치 두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양 곳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원문의 계승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냐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양진암(養眞庵) 법보전(法寶殿)과 선원

전일주 / 문학박사



양진암(養眞庵)은 1743년(영조 19년)에 무주 국사가 창건하였다. 1898년(광무 2년)에 춘파 화상(春坡和尙)이 중수하였다. 그후 퇴락해 있던 것을 1958년 비구니 배성련 스님이 법주사 수정암에서 이곳으로 와 가람을 정비하고 비구니 참선 도량으로 사격(寺格)을 다져나갔다. 현재의 가람은 선원을 중심으로 동쪽에 정묵당이 있고, 서쪽에 미소실(微笑室)이 있으며, 선원 뒤로 법보전과 토굴이 있고, 선원 앞마당에는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아래채는 현대식으로 지어진 2층 건물에 육화당과 관음전이 들어서 있다. 1958년부터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제방의 운수납자들 가운데 이곳을 거쳐 가지 않은 수행승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유서 깊은 비구니 도량이다.

양진암은 비구니 수행처이다. 양진암은 동화사의 산내 암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주변 경관도 수려하다. 암자 주위를 적송(赤松)과 계곡이 둘러 있어 절의 격을 한층 높여 준다. 또한 육화당 너머 병풍처럼 두른 동봉의 암벽이 볼 만하다. 동화사의 서편 주차장에서 매점 뒤로 난 길을 따라 서북쪽으로 800미터 정도를 가면 암자를 만날 수 있는데, 계곡을 따라 울창한 숲을 한참 올라가면 부도암이 먼저 나온다. 부도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암자이다. 산문을 들어서면 도량이 무척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는



다. 비구니 스님들이 수시로 울려하여 암자를 가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화단에 핀 국화가 산사의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 준다.

1. 법보전의 편액과 주련

何方世界有暗耶(하방세계유암야)
 遍照光明無餘地(편조광명무여지)
 人人各持自燈火(인인각지자등화)
 豈待日月尋前路(기대일월심전로)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 어두운 곳 있으려
 밝은 빛 두루 비치어 그늘진 곳 없도다.
 사람마다 제각각 자신의 등불을 가졌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서 앞길을 찾으리오!

이 자연스럽다.

2. 양진암(養眞庵) 선원의 편액과 주련

법보전(法寶殿)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이며, 양쪽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고 있다. 법보란 불법승 삼보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한 경전·율장·논장을 총칭하는 말이다.

편액과 주련의 글씨는 경남 통도사(通度寺) 조실(祖室)이셨던 노천(老天) 월하(月下) 스님이 쓴 것이다. 글귀 중 제1구와 2구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월하 스님께서 통도사에서 설법하신 법문에는 “遍照光明無餘地, 何方世界有暗耶.”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표현



性海圓澄 本不假修(성해원징 본불가수)
 然因無明 迷而不通(연인무명 미이불통)
 施諸方便 養眞修德(시제방편 양진수덕)
 切心做工 提起公案(절심주공 제기공안)
 如猫捕鼠 如渴思水(여묘포서 여갈사수)
 前後際斷 忽歸家鄉(전후제단 훌귀가향)
 與物同和 復遊自在(여물동화 부유자재)
 寂而常照 照而常寂(적이상조 조이상적)
 猷如蓮花 處染常淨(유여연화 처염상정)

법성의 바다는 본래 둥글고 맑아서 수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네.
 그러나 무명으로 인하여 미혹해서 통명(通明)하지 못하다네.
 여러 방편을 베풀어서 참됨을 기르고 덕을 닦아야 한다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공안(화두)을 제기하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하라.
 전후 망상이 다 끊어지고, 홀연히 제 집으로 돌아가나니,
 사물과 동화하여 거듭 자유에서 노닐 수 있다네.
 고요하면서도 항상 밝고 밝으면서도 늘 고요하니,
 비유하건대 마치 연꽃 같아서 더러운 데 있어도 항상 깨끗하다네.

선원(禪院)은 양진암의 중심 건물이며, 7자 형태이다. 선원의 좌우에는 정묵당과 미소실이 마주하고 있고, 중앙에 불탑이 자리하고 있다.

선원에 걸린 '양진암(養眞庵)'이란 편액은 소박한 해서체인데, 금강산인(金剛山人)이 쓰고 서각(書刻)까지 하였다. 주련은 초서체인데, 선필(禪筆)이라서 해독이 어려운 편이다.

글의 내용에서 제3구, 4구는 《선가귀감(禪家龜鑑)》 13절에 나오는 구절이며, 제7구는 《선문정로(禪門正路)》에 나온다.



병신년 동지법회

희망찬 정유년 되길 기원

2016년 12월 15일 입재한 병신년 동지 7일간 기도가 21일 동짓날 회향했습니다. 이번 동지기도에는 모두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7일 동안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동짓날 대적광전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① 동지법회 법문을 하는 실상 주지스님
- ② 동지법회 사회를 맡은 사공순옥 보살
- ③ 동지 팔죽을 쑤기 위해 빛은 새알심
- ④ 병신년 동지를 맞아 동지 팔죽을 쑤는 모습





- ⑤ 법회에 앞서 영단에서 시식을 올리는 불자들
- ⑥ 아름다운 선율의 독창을 음성공양하는 정무시 합창단 지휘자
- ⑦ 대적광전에서 주지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불자들
- ⑧ 동지법회 축가를 부르는 우담바라 합창단



법왕사 소식

병신년 동지기도 회향



2016년 12월 15일 입재한 병신년 동지 7일간 기도가 21일 동짓날 회향했습니다. 이번 동지기도에는 모두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7일 동안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동짓날 대적광전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제33회 백고좌법회 2월 14일 입재

법왕사 제33회 백고좌대설법회가 2월 14일 입재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이날부터 5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법회인 제31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불교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동지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지 7일 기도 회향 방생 및 순례법회를 봉화 축서사, 청산농원, 낙동강에

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방생법회에는 모두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축서사를 참배하고 청산농원을 방문한 다음 낙동강변에서 미리 준비한 방생물을 방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 달력 배포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동지를 맞이하여 2017년 정유년 새달력을 배포하였습니다. 달력은 모두 5천부를 제작하였는데 정기법회와 각종 기념일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신행생활에 큰 길잡이가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신천 건너는 징검다리 공사 중



파동에서 신천을 가로질러 법왕사로 건너는 징검다리 공사가 곧 마무리되어 개통됩니다. 징검다리가 개통되면 수성못 오거리나 파동에서 법왕사에 오기가 한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도 매우 아름답게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파동 송원맨션 앞에 주차하시거나 버스에서 하차하신 후 징검다리를 건너 오시면 됩니다.

가창 삼산리 해오름마을 앞 공원 조성



법왕사가 제2요양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해오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가창 삼산리 5천평 부지 앞에 달성군에서 공원을 조성, 더욱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오름마을 입구에 위치한 달성군 소유 7백여평 부지에 조성된 공원에는 조경수와 석재 등을 이용해 경관을 꾸였고 법왕사에서는 포대화상 입상을 세워 불교적 분위기를 복돋았습니다.

화엄신중 2차 천일기도 봉행 중

법왕사에서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7월 11일 까지 1천일 동안 화엄신중 제2차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일기도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회 축원을 올리며 음력 초하루와 보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특별기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직도 접수중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불련 정기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연속으로 운불련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운불련 7백여 회원들은 정기법회를 법왕사에서 봉행하기로

결의한 이후 매월 빠짐없이 법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불 원불 점안식 봉행

지난해 11월 29일 대적광전에서 새로이 모신 만불 원불에 대해 정기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정초 기도 법회

2017년 정유년 한해, 서원을 세우고 조상님의 천도를 기원하며 정초기도를 올립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설날합동차례
입 자 : 1월 28일(음력 1월 1일)

정초 7일 기도
입 재 : 1월 30일(음력 1월 3일)
회 향 : 2월 5일(음력 1월 9일)
동 참 : 5만원

문의 - 종무소 053)766.3747



새로 오신 법우님

김종훈 김동순 김명호 김종만 정근호 박해일
유경수 안진미 이창우 김민철 윤정호 박철웅
김종진 윤주연 김상국 강영인 김세현

사보도움 주신 분

선진스님 300부 양창구 100부 권경오 5만원
법안스님 400부 이철우 2만원 김수자 2만원
홍공덕스님 200부 송정숙 200부 강소남 20부
구실상화 200부 신장회 100부 이재학 50부
백대행심 50부 주정남 100부 관음회 100부
추보련화 50부 이세정 100부 권순득 1000부
지장회원 100부 김명숙 30부 민기주 1000부
권마하연 100부 강선옥 50부 자운스님 100부
조진불심 100부 합창단 100부 최정삼행 300부
삼성고속 최영달 50부

공양 올리신 분

◎ 떡공양 올리신 분

정성욱 박정숙 박홍렬 백철기 박홍렬 정근순
정성욱 정근순 김복남 백인혁 이영석 강지원
권영숙 이유태 유명옥 한은숙 류윤만 정영웅
노수정 김순태 김민지 이재학 이정애 김상수
강석운 심규암 양봉를 김혜진 이창수 정국영
임영훈 양영갑 심규암 김판돈 정재민 신병기
문덕용 여지원 최유영 권태영 고명환 김 학
심혜정 김희성 권준엽 박세훈 정진우 제갈선
하경용 강동환 정영미 최정삼행 卍 전철덕
박무착심 백보현행 권상태(10, 11, 12, 다례제)
양문갑(10, 11, 12, 다례제, 보름, 신장재일, 초하루)
양영갑(10, 11, 12, 초하루, 다례제, 보름, 신장재일)
이세정(10, 11, 12) 이승민(11, 12) 전정진행
김하윤 이경자 양영갑(지장재일)
양문갑(지장재일) 양영갑(동지) 양문갑(동지)

◎ 과일공양 올리신 분

배해동 백경원 제갈옥 김호연 박영균 박태숙
김민지 최월연 권혁만 류윤만 김경희 최태희
송순분 권영숙 황미선 최홍규 신병기 이승민
이정현 이소영 권순교 김인수 김수라 정영이
박홍렬 김근태 박이자 박세훈 신재호 양봉훈
양지영 황해석 김창용 우정욱 이준호
신성가스 김정현(10, 11, 12) 권순예(10, 11)
김중황(10, 12) 양문갑(10, 11) 양영갑(10, 11)
양혜진(11, 12)

◎ 공양미 올리신 분

이정애 하상헌 이동학 정재철 김상수 김보미
김주현 정시영 류윤만 육민환 권숙자 김수자
김수자 박경영 심규암 양봉를 불화반 김우경
김의환 김상한 이세정 이희로 정정교 손대천
김근태 김경찬 심영호 심재용 김유창 김해승
금태운 주용숙 양문갑 여영동 여택동 김장식
이영광 장용선 이세정 오시연 강남신 정해용
황보인 정영웅 정민수 심규용 김지택 김주택
김우영 니영연 김순자 신지원 이광진 고은희
석동호 박철웅 여창식 윤정호 김영숙 윤혜진
전득곤 김미희 전홍열 구제철 사공순옥
이수월심 卍장학승 卍장익표 정돈 성 윤(11, 12)
심보현(10, 11, 12) 김선우(10, 11) 이세정(11, 12)
卍조복래 이영광 황래화

◎ 대중공양 올리신 분

김혜숙 김정현 김형순 문지환 고명환
김근태 최태희 신장회 김기석 김수식
심혜정 김일근 성 윤 이재우(11, 12)
박경란(법생) 구실상화(법생)

◎ 상달 산신다제 공양 올리신 분

고명환 김현숙 고영인 양봉훈 양지영 황해석

양혜진 김창용 이영광 정국영 정시영 이승민
하경용 장용선 신병기 문지환 김근태 최태희
김정석 이세정 정영미 우정욱 김봉식 김성희
김민수 김은지 신재호 김현주 신현태 신현중
신현욱 권정에 제갈선 성 윤 정 돈

◎ 동지 공양물 올린신 분

이정상 최옥분 심혜정 고은희 석동호 박철웅
여창식 윤정호 김영숙 윤혜진 전득근 김미희
전홍열 정재민 이광진 신지원 김순자 김판돈
박봉희 최태희 김종황 김근태 차운재 이경자
김기덕 손학수 김희원 이영광 우연희 양봉훈
양혜진 장수임 전필근 권춘자 황래환 강정선
정연국 문지수 정 돈 김세현 박종성 김수자
정해용 합창단 일동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린신 분

◎ 법사비 불사하신 분

관음회 이길우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최춘가 변선유화 우영근 심혜정 양혜진
이광진 김대덕화

◎ 일년등 올린신 분

803. 류종렬 804. 김종만

◎ 2017년 일년등 올린신 분

1. 정현표 2. 김수식 3. 김기석 5. 윤주연
6. 김순태 7. 금동인 8. 류윤만 9. 민병철
10. 장기란 11. 최재승 12. 장세훈 13. 권병기
14. 장현목 15. 심동섭 16. 김기수 17. 신영일
18. 이우영 19. 김순조 20. 최우영 21. 김일곤
22. 진성렬 23. 이이근 24. 김성기 25. 장영우

26. 조분기 27. 함지훈 28. 박해진 29. 박경훈
30. 유욱재 31. 신창진 32. 류윤만 33. 심규암
34. 박정수 108. 홍승규 118. 박홍렬 119. 이순남

◎ 해오름마을 한평불사 올린신 분

김판돈 전형진(1평) 노승엽(1평) 김정국(2평, 3평)
김정국 외 주식제자일동(10평) 박성호(2평, 3평)
최민우(1평) 이정엽(1평) 심수은(2평) 김진성
주상준(1평) 김가을 오광진(7평) 정경화
권오삼(1평) 함혜영 정우진 권오삼(10평)
박은영(1평) 노승엽(1평) 최민우(1평)

◎ 범종불사 올린신 분

한 이상진(10, 12)

◎ 부처님복장물 올린신 분

이법일 고명환 김현숙 고영인 김정숙 김영숙
이상훈 이상진 손미영(10, 12)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3531 한정은재 3532 이준우 3533 창장병철
3534 송윤선 3535 송윤선 3536 송윤선
3537 송윤선 3538 김창순 3539 태태분남
3540 난박병렬 3541 한정화자 3542 단고영숙
3543 난이종석

◎ 삼신불 불사하신 분

원지심(상덕화) 서정훈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20 신명균 44 이정상 99 김삼희

◎ 대적광전 삼신불 올린신 분

원지심 서정훈 윤정호 박수미 윤혜진 윤호용
박철웅 김정숙 박태현 박세미 석동호 박순선

석형수 석명수 최병희 김미희 최가영 최지섭
이서헌 김영숙 이상훈 이상진 전득곤 이미령
전필근 전홍열 현대훈 박춘이 현민준 김종진
장정분 김태형 여창식 서보혜 여성를 이성태

◎ 만불전 1인원불 봉안하신 분

천이중석

◎ 법공양 올리신 분

일진행

◎ 산신인등 올리신 분

62 정민술

◎ 법사비 올리신 분

지장회

◎ 물품보시 올리신 분

이영석(화장지10꾸러미) 신장회(장판)

신장회(달력)

왕생극락하옵소서

- ◆ 천 정은재 영가의 막재가 9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손계출 영가의 기제사가 9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명선 영가의 기제사가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천 박순생 영가의 기제사가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창순 영가의 초재가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관음행 영가의 막재가 9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장병철 영가의 초재가 9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강규조 영가의 기제사가 9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천 백상흙 영가의 기제사가 9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최위선 영가의 막재가 10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천 류중훈 영가의 초재가 10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이세진 영가의 초재가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고태선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고영숙 영가의 초재가 10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복귀 천 상세선망 부모일체 영가 천도재가 10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של매 영가의 막재가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유판선 영가의 초재가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정상금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고영숙 영가의 초재가 10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창순 영가의 막재가 10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태선 영가의 기제사가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장병철 영가의 막재가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정현수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천 박영하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삼석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천 박중석 영가의 막재가 11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 복귀 천 상세선망 부모일체 영가 천도재가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천 류중훈 영가의 막재가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이세진 영가의 막재가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정순홍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성석금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이재식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이종호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유판선 영가의 막재가 1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정화자 영가의 초재가 1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장달수 영가의 기제사가 1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고영숙 영가의 막재가 1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강운섭 영가의 초재가 12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오한영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최주태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천 김숙자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조복래 영가의 초재가 1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천 채종순 영가의 2재가 12월 18에 있었습니다.
 - ◆ 천 권무길 영가의 초재가 1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10월 소식



가을 산책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어느 날, 어르신들과 함께 경내 산책을 나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어르신들이 지 나간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세월의 가운데에서 남은 시간을 경건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치매예방체조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서 옆자리 어르신들과 함께 복치고 인사하기, 손 마주 대고 체조하기 등 다양한 체조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야외 나들이

수성못 축제기간을 이용하여 써포터즈봉사단과 함께 어르신들이 야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탁 트인 수성못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축제의 볼거리를 즐기시면서 어르신들 모두 즐겁고 만족스러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건강장애 예방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장애 예방교육이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홀에서 열렸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천지침, 감염성 질환 예방 실천지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오름 요양원 11월, 12월 소식



사나래 봉사단

사나래 봉사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사나래란 '천사의 날개'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그 이름에 맞는 단체답게 어르신이 즐겁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시간 내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치매 심포지엄 참석

치매 심포지엄이 지난해 10월 26일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치매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유용한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성시니어공연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에게 공연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성시니어공연단이 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함으로써 어르신들과 종사자 모두가 함께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카리나 공연

오카리나공연 봉사단원분들이 방문하여 직접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연주를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어르신들도 아름다운 소리에 맞추어 박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여가시간을 보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허고은(음악치료)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여진심(실버체조)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써포터즈(야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사나래(놀이치료) 더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0~11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민주 2만원	김진성 2만원
강선옥 10만원	김봉숙 1만원	김진현 1만원
강소남 1만원	김성의 2만원	김진현 10만원
강심규 1만원	김성자 2만원	김진현 2만원
강영도 4만원	김수곤 1만원	김진현 2만원
고연숙 2만원	김수라 2만원	김진현 4만원
고재욱 4만원	김수원 1만원	김필남 2만원
구정대 4만원	김수윤 1만원	김혜자 1만원
권계화 2만원	김수자 2만원	남기웅 2만원
권수미 2만5천원	김숙희 2만원	노귀자 1만원
권숙자 2만원	김순덕 2만원	노수정 2만원
권순득 2만원	김순연 5천원	도순자 1만원
권순미 2만원	김순태 2만원	도화순 1만원
권순영 2만원	김양순 2만원	독고보경 2만원
권순칠 2만원	김영호 2만원	류윤만 2만원
권영철 1만원	김영희 1만원	문정애 2만원
권오관 4만원	김옥희 1만원	박경자 1만원
권오국 2만원	김외화 2만원	박귀분 2만원
권춘자 6만원	김용태 2만원	박남희 9만원
금명섭 1만원	김우영 2만원	박대희 1만원
김경자 2만원	김원형 12만원	박동규 1만원
김경호 2만원	김은주 2만원	박성숙 1만원
김기덕 4만원	김임태 1만원	박성용 1만원
김기수 4만원	김정규 1만원	박성은 1만원
김대현 1만원	김정숙 1만원	박성은 1만원
김만기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성후 4만원
김명옥 2만원	김정순 6만원	박수진 2만원
김명희 2만원	김정임 2만원	박순남 1만원
김미자 2만원	김정자 1만원	박순영 1만원
김미정 2만원	김주현 2만원	박원태 3만원

박인철 2만원	안명희 2만원	이임숙 4만원
박정목 2만원	안인술 5천원	이재봉 1만원
박종규 2만원	안희선 2만원	이전희 1만원
박종환 2만원	양나영 1만원	이점에 4만원
박지연 40만원	양봉률 2만원	이정숙 2만원
박치민 1만원	양지영 2만원	이정연 1만원
박태숙 1만원	양혜진 2만원	이정옥 2만원
박희조 1만원	엄세비 2만원	이정화 2만원
반룡사 2만원	여택동 1만원	이정희 1만원
배수현 4만원	오난옥 1만원	이정희 6만원
배하수 2만원	용마관음사 6만원	이종희 1만원
사공관 4만원	유경희 2만원	이준우 1만원
서동남 2만원	유명옥 2만원	이채원 2만원
서정희 2만원	윤명숙 2만원	이하예진 1만원
서치경 2만원	윤윤근 2만원	이현기 2만원
서호정 4만원	이경자 2만원	이현옥 2만원
석종순 2만원	이금옥 2만원	이호동 1만원
성인자 2만원	이남희 2만원	이호조 2만원
손복남 2만원	이명숙 2만원	임상덕 2만원
손수경 2만원	이명희 2만원	임예숙 2만원
손수연 2만원	이병노 2만원	장성규 1만원
송민경 2만원	이병희 2만원	장재혁 1만원
송정숙 1만원	이복희 2만원	장찬구 1만원
시명숙 2만원	이상학 2만원	장호주 1만원
신구자 1만원	이석규 10만원	정경석 4만원
신돈식 2만원	이성자 2만원	정경숙 2만원
신세호 2만원	이성환 1만원	정명선 4만원
신임선 1만원	이수진 2만원	정무시 2만원
신진숙 2만원	이승미 2만원	정미화 2만원
신충호 1만원	이승환 1만원	정민경 2만원
신화식 2만원	이옥자 2만원	정병태 2만원
심규암 1만원	이용옥 2만원	정숙자 2만원
심종순 1만원	이유태 2만원	정순옥 5천원
안경순 2만원	이인순 1만원	정시영 2만원

정연이 1만원	조성자 1만원	최정수 4만원
정영자 1만원	조영석 2만원	최창숙 1만원
정옥선 2만원	조인성 1만원	한규매 2만원
정옥수 1만원	조정자 1만원	한희록 2만원
정인철 4만원	진봉희 2만원	허유미 1만원
정차기 2만원	채옥연 1만원	홍애분 2만원
정태교 1만원	최경순 2만원	홍유식 1만원
정혜숙 2만원	최분규 2만원	황미선 4만원
정활수 3만원	최승임 2만원	황준원 2만원
정활수 3만원	최영희 2만원	황지영 2만원
조규인 2만원	최윤희 1만원	황학영 2만원

총합계 : 5,08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0,000원 강미경 10,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강병철 김명희 김보민 김정숙 김태숙 박상용
박종환 안인솔 이수진 정차기

◎ 지출내역

식 재료비	: 4,259,050원
쌀 구입비	: 1,500,000원
간식 구입비	: 587,090원
케이크 구입	: 86,500원
사무비	: 383,300원
CMS수수료	: 88,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88,000원

총지출 : 6,991,94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이덕순 어르신 보호자: 비타500 1박스, 박카스 2박스, 야쿠르트 30개, 음료수 3병, 불가리스 48개, 카스타드 3통

박해연 어르신 보호자: 야쿠르트 100개, 호박엿 2봉지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감 1상자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포도 1상자, 바나나 1상자, 굴 1상자, 비피더스 48개, 카스타드 1박스, 빗자루 1개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박카스 1박스, 비오버타 1박스

장정옥 어르신 보호자: 커피 1박스, 박카스 2박스, 좌변기 1개, 디펜드 3개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박카스 1박스, 감홍시 2상자, 야쿠르트 50개, 요플레 30개, 카스타드 5봉

김숙희 어르신 보호자: 비피더스 64개

김숙자 어르신 보호자: 커피 2박스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야쿠르트 90개

이정화 어르신 보호자: 비피더스 8개

박동심 어르신 보호자: 감 1상자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굴 1상자

이복선 어르신 보호자: 굴 1상자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요플레 30개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커피 340개

웃음치료 봉사단(라인댄스): 굴 1상자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새로 입사하신 분

김미희 요양보호사

신규 입소 어르신
김장수 어르신 박동심 어르신 안남조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주지스님의 생활역학(택일 · 작명 · 개명 · 묘터) 봉사 안내



법왕사에서는 불자들이 맞는 이사와 결혼, 이장 등 택일, 작명과 개명, 묘터 선정에 관한 생활역학 문제에 대해 주지 실상스님께서 불법에 의거해 봉사하기로 하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불자들이 불법이 아닌, 무속이나 사이비 역학에 의해 이러한 생활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부처님법에 의한 조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12.8 5	6	10 7
			합창단 연습	부처님 성도재일	불교대학(오후 2시)	신장재일
8	9	10	11	15 12	16 13	14
			합창단 연습	보름인등기도 천일기도(오후 2시) 거사림법회(저녁 7시)	불교대학(오후 2시) 산신기도(오후 2시)	
18 15	16	17	18	19	20	24 21
지장재일			합창단 연습		불교대학(오후 2시)	관음재일
22	23	24	25	26	27	음 1.1 28
			자비회 합창단 연습	거사림법회(저녁 7시)	불교대학(오후 2시)	초하루 설날합동차례
29	30	31				
	정월정초 7일기도 입재	정초기도 2일차				

법왕사 경월대보름 삼재풀이 대법회

- 일 시 : 입춘 시작일 ~ 정월 대보름 (2월 11일)
- 대 상 : 늘삼재(범띠, 말띠, 개띠)
- 준비물 : 1인 쌀 3되3홉 동전 나이수 대로 묵은 속옷 1벌
- 기도비 : 1인 3만원

2017년도(불기 2561년)
정유년 '달력시주' 접수받습니다
사업체명 새겨 드립니다(1부 2,000원)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달력시주 공덕은 일년 365일
신도님들과 함께합니다.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정유년 2017년 소·원·성·취
일년등 동참 받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부모님께는 보답의 등을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상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sa.or.kr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불사 모연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大寂光殿) 장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웅장한 단장을 완공하였고 현재 불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삼신불 봉안불사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웅장한 대적광전에 주석하실 삼신불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복장물 접수안내

오보(다섯가지 보배)	거부 장사가 되길 원하는 불자	각자지참
오곡(쌀, 보리, 대두, 조, 기장)	음식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사(다섯가지 실)	좋은 인연을 가지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향(다섯가지 향)	몸에서 법신, 법계의 향내가 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화(다섯가지 꽃)	아름답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금(다섯가지 비단)	좋은 옷이 생기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경(다섯가지 거울)	심신이 깨끗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약(다섯가지 약)	번뇌를 멀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필(다섯가지 붓)	학문이 수승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병(다섯가지 병)	집안을 장식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다라니	권력이나 진급을 원하는 불자	2만원
경면주사	삿된 귀신이 침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초기원형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중급반	영일스님	초기원형불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2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33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3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1일차

2월 14일
입재법회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 5일차

2월 18일
특별법문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 7일차

2월 20일
특별법문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 일시 : 2017년 2월 14일 ~ 5월 24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2월 14일 ㉸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9일차	2월 22일 ㉸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2일차	2월 15일 ㉸	지운스님	범어사 교수사	10일차	2월 23일 ㉸	현각스님	원주 성불 원장
3일차	2월 16일 ㉸	화랑스님	부산 동명불원 주지	11일차	2월 24일 ㉸	대현 비구니스님	칠곡 정암사 주지
4일차	2월 17일 ㉸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12일차	2월 25일 ㉸	해성스님	함안 삼불사 주지
5일차	2월 18일 ㉸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13일차	2월 26일 ㉸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6일차	2월 19일 ㉸	노후스님	공주 행복도량 주석	14일차	2월 27일 ㉸	효상스님	가창 선흥사 주지
7일차	2월 20일 ㉸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15일차	2월 28일 ㉸	지찬스님	경기도 의정부포교원
8일차	2월 21일 ㉸	일장 비구니스님	화순 유마승가대학장	16일차	3월 3일 ㉸	우관 비구니스님	이천 감은사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